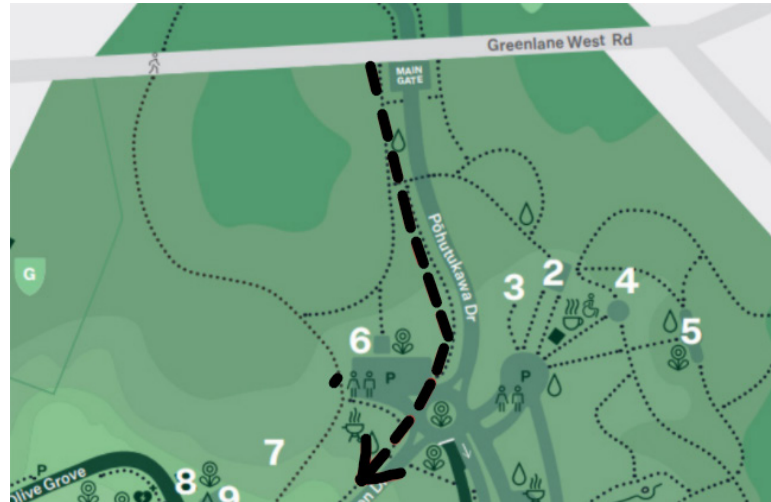


교회소식

1. 예배 후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1시 50분).
2. 전교인 야외 예배가 오는 2월 8일 (월) 각 공동체별로 있습니다.
장소: 윈 트리 힐 Cornwall Park
ASB Showgrounds (그린레인) 입구에서 바비큐시설 쪽
시간: 10시 30분



3. 다음 주일은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4. 달력과 요람 여분이 남아 있으니 더 필요한 성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맡은 사역들을 요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FEBRUARY

교회사역일지

2월 17일(수) 참회의 수요일
2월 21일(주일) 사순절 1
2월 24일(수) 공동체 주관 예배
2월 28일(주일) 청년 주일, 제직회

기도순서

2월 7일 (주일) 현석호 장로
2월 10일 (수) 김선화 권사
2월 14일 (주일) 손조훈 집사
2월 17일 (수) 김영아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정인, 김현주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소진, 박해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05호 2021.01.31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Praise		주일찬양단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요한계시록 3:20	인도자
찬송	Hymn	40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Hymn	284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창세기 18:1-8	인도자
찬양대찬양	Choir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Sermon	하나님을 환대하는 아브라함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534장	다함께
헌금기도	Offering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Closing Scripture		다함께
응답송	Closing Hymn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중앙 아시아 K국 강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2021년 첫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신지요. 올 한 해 마음먹은 결심, 계획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하게 열매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잠시, 그리고 다시 K국으로: K국 비자 관련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 다시 가서 3주 동안 있었습니다. 첫 2주는 자가격리를 했고, 그 기간 중에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1주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새벽에 K 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류 제출: 공증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영주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25도, 밖에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추웠지만 마음은 가볍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두 달 동안 서류를 심사하고 집에 경찰이 방문해서 제가 실제로 그 주소에 사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12월 마지막 날에 음식을 준비해서 N목사님 댁에 저와 A선생님이 저녁 시간부터 가서 G사모님과 함께 음식과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1월 5일까지 모임을 자제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예년에 비해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함께 먹고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새해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또 한 해를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나하르 드림

기도제목

1. 2월까지 경찰 방문, 인터뷰가 있는데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잘 해서 영주권이 나오도록
2. G학생 어머니와 계속 만나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Prayer	김명옥 집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1:18-20
설	봉	Sermon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360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2021년 1월 24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절망은 소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창세기 17:15-27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삶에 행동과 끈고가 교차하여 장래 일을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전 7:14). 곡에서 가 공중에서 줄을 놓을 때의 절망과 잡았을 때의 소망처럼 절망과 소망의 교차가 인생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도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비웃음으로 절망을 표현했습니다(17).

1) 왜 절망하나?:

(a) 사래가 절망한 것은 강한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 강한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사래를 낮추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갈 2:20)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 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신 8:14-16).

(b) 보이지 않는 소망보다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6) 약속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풍랑 중에도 깊은 바다는 고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만 보면 아무리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왕상 19:4).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데도(롬 8:24) 절망이 소망을 가릴 때 믿음으로 검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2) 절망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절망한 자는 신앙의 대안을 찾으려 합니다(18).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고 알려주셨음에도(19) 아브람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18).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에 기대를 걸고 절망을 이기려 했습니다. 우리도 내 신앙의 합리화와 정당화를 위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편리한 온라인 예배를 신앙의 대안을 삼는다면 예배 실패자가 됩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라며 미혹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진리가 아닌 종교혼합주의일 뿐 신앙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을 붙잡는다면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행 4:12) 때문입니다.

3) 어떻게 절망을 털어내고 소망을 얻나?: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절망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19). 아브라함이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한 ‘이날’은(23) 아브라함이 자신을 내려놓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스스로 포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고 나를 포기하고 항복할 때 그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죄로 인하여 처절한 마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바뀝니다(롬 7:24).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롬 8:1-2)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은 소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살아내는 갈보리 교회 온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새로 구성된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3. 신앙생활이 습관이 아닌 삶의 중심이 되어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